古代 및 中世 吏讀 硏究의 回顧와 展望

李 勇*

要約

이 글에서는 고대 및 중세 이두에 대한 종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회고적으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두의 기원 및 개념, 이두의 자료, 전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두의 기원 및 개념과 관련해서는 과거 이두 연구 초기의 논의부터 초기 이두라고 할 수 있는 광개토대왕비문, 목간 자료 등에 대한 최근 성과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자료와 관련해서는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나누어 다루었다.

*핵심어: 吏讀, 韓化漢文, 借字表記, 口訣, 木簡

1. 서론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 조상은 한자를 수입해서 썼다. 그러나 언어계통상 차이가 많이 나는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자가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았으므로, 한자를 우리말 표기에 맞게

* 서울市立大

변형해서 쓰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발달한 것이 이두·향찰·구결이다. 이 중에서 이두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찰은 전면적인 표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구결은 문법요소인 구결토가 어느 정도 굳어진 다음에야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이 이두보다 앞선 표기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두에 대한 연구는 우리말 표기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된다고 하겠다.

이 글의 목적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두 연구를 사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름대로 앞으로 이두 연구가 나아갈 바를 밝혀 이두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다각도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두의 기원과 개념에 대한 연구들의 정리, 개별 자료에 대한 연구들의 정리, 문법 형태에 대한 연구 등의 정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근래의 연구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3년 문수사에서 석독구결자료인 『舊譯仁王經』이 발견된 이래 차자표기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 후 2000년에 발견된 『瑜伽師地論』 각필구결은 차자표기 연구에 더욱 힘을 실어 주었다. 더욱이 최근에 목간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이두 자료가 출현하여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조성되는 듯도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료에 흥분하기보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아우르고 정리하여 차분하게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硏究史

2.1. 吏讀의 起源 및 槪念

이두의 개념만큼이나 그 정립이 어려운 것은 많지 않다. 누구라도 이

것은 이두라고 인정하는 자료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두의 기원과 관련된 초기 이두의 자료라면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 한문, 이두, 한문과 이두의 중간 형태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차자표기와의 관계 정립이 만만치 않다.

먼저 申采浩(1924)는 이두를 차자 표기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小倉進平(1929: 286)은 문헌상 '吏讀'란 명칭이 조선초기부터 나왔음을 근거로 하여 鄕札의 명칭은 吏讀란 명칭이 발생되기 전까지 鄕歌·固有名詞 등의 한자 차자표기 및 이두표기를 포함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吏讀는 '胥吏의 使用하는 語尾'로 보았다. 李熙昇(1955)은 이두의 개념을 광의의 이두와 협의의 이두로 나누었다. 광의의 이두는 한자의 음과 석을 빌어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을 총칭하여 향가와 어휘 표기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을, 협의의 이두는 이문의 보조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대체적으로 광의의 이두와 협의의 이두로 나누는 데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광의의 이두를 한자의 음과 석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쓴 것으로만 한정짓게 되면, 차자표기의 초기 자료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廣開土大王碑文, 壬申誓記石, 瑞鳳冢銀合杅 銘文 등에 쓰인 불완전한 문장을 현재 대체적으로 '吏讀'로 부르고 있는데, 이들 자료 중에는 音과 釋을 빌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에 속하는 중 대표적인 것이 '之'나 '中'인데, 이것들은 단순히 한문의 虛辭를 변용해서 썼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두의 기원과 관련하여 문헌상 관찰되는 것은 薛聰의 제작설이다. 이에 대해서는 『帝王韻紀』(李承休)의 '弘儒薛侯製吏書 俗言鄕語通科隸', 『大明律直解 跋』(金祗)의 '薛聰所製方言文字 謂之吏道', 訓民正音 반대 上疏文(崔萬里)의 '新羅薛聰吏讀', 『訓民正音 序』(鄭麟趾)의 '昔新羅薛聰始作吏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薛聰…以俚語製吏札' 등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기록들과 관련하여 白鳥庫吉(1897), 金澤庄三郎(1918), 小倉進平(1929) 등 일본학자들은 吏讀와 같은 표기가 어느 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薛聰의 제작설을 부인하였다. 반면에, 鄭寅承(1957)에서는 『帝王韻紀』와 『均如傳』의 기록을 들어 薛聰이 이두를 제작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 차이는 이두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도 적지 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학자들은 이두를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鄭寅承(1957)은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한 데서 온 인식의 차이로 보인다.[1] 위의 기록들에 나오는 이두는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지만 '吏書, 吏道, 吏讀' 등의 용어가 실용문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협의의 이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2] 그러므로 薛聰의 제작설은 薛聰이 차자표기 전반이 아니라 협의의 이두에 속하는 이두 표기법을 고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安秉禧 1987ㄱ).[3]

결국 이두의 형성이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4] 이런 점에서 광의의 이

---

1) 홍고(2002: 10)을 참고하면 일인학자들이 광의의 개념에서 이두를 파악한 까닭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일본인에 의한 이두 연구의 목적은 19세기 독일 비교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이두의 원의를 규명하여 그 계통을 밝히는 데 있었다고 한다.

2) 자세한 설명은 安秉禧(1984ㄱ)를 참조. 安秉禧(1984ㄱ)에서는 借字表記法이 形成되는 과정을 몇몇 漢字의 助字를 이용해 國語 形態部를 적는 1段階와 漢字의 원래 意味와는 무관하게 借用하여 國語 形態部를 表記하는 2段階로 나눠 볼 수 있는데, 薛聰 製作說과 關聯된 記錄들은 薛聰이 2단계 借字表記法을 考案했음을 말하는 것으로 解析하였다.

3) 일부에서는 薛聰이 9경을 읽었다(薛聰…以方言讀九經, 『三國史記』)는 데서 이두가 아니라 구결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4)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자의 형성과 관련된 것이다. 한자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는 창힐이 한자를 창조했다고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유적 발굴로 인해 지금은 창힐이 한자를 창조했다는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되었다.

두가 형성된 과정과 시기에 주목하는 학자들이 생겨났다. 李弘稙(1954), 홍기문(1957), 姜詮燮(1963) 등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은 초기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두의 고구려 발생설을 주장하였다. 먼저 홍기문(1957:28)에서는 廣開土大王碑文에 이두적인 표현이 있다고 보았다.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連葭浮龜'(1면 2행)에서 '鄒牟王' 석자를 아래로 '爲我連葭浮龜'에 붙여 한 구절로 만드나 위로 '母河伯女郎'에 붙여 한 구절로 만드나 모두 문리가 잘 통하지 않으므로, 구두어에서 말하는 그대로 죽 해석해 나가야만 전체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王於忽本東岡 {黃?}龍{負?}昇天'[5](1면 3행-4행)의 '於'나 '買人制令守墓之'(4면 9행)의 '之'도 모두 초기 이두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李弘稙(1954)은 瑞鳳冢의 銀合杅에 쓰인 '三月中'의 '中'이 이두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姜詮燮(1963)은 瑞鳳冢 銀合杅의 명문을 고구려의 것으로 보고 여기에 쓰인 '中'자와 平壤城壁石刻文의 '部', '節'을 格助詞 表記로 보아 吏讀가 高句麗에서 起源한 것으로 보았다. 南豊鉉(1975ㄴ)에서도 平壤城壁刻書의 '中, 節, 之'의 用法과 語順이 新羅의 그것과 一致하는 점, 李崇寧(1955)에서 밝혀진 고유명사표기가 삼국이 공통되는 점, 廣開土大王碑의 '烟'이 日本 正倉院 소장 新羅帳籍에 나타나는 점을 들어 차자표기법이 고구려에서 발생하여 신라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현재 이두가 고구려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이 이루어져 있다.

이두의 기원과 관련한 논의들이 근래에 들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새로운 자료들의 발굴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木簡 자료의 발굴은 그 의의가 크다. 金永旭(2003)은 목간 자료의 발굴과 해독을 통해 이두의 기원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宿世歌'라고 명명

5) '{黃?}'과 '{負?}'에 따로 표시를 한 것은 이들 글자가 확정적으로 판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 이 자료를 초기 이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삼국에 모두 이두가 있었을 것이라는 종래의 추정에 좋은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鄭在永(2003)도 백제에 이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金永旭(2004)에서는 高句麗, 百濟, 新羅의 자료들을 아울러 한자와 한문의 한국적 수용 양상을 보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한국적이라고 한 것 가운데는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 없지 않았다.[6] 金永旭(2008)에서는 하한선이 7세기인 月城垓子木簡을 석독 이두 자료로 소개하였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종래의 추정보다 이두의 토가 일찍이 발전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 논의는 윤선태(2005)에서 일차적으로 판독과 해독을 달았던 것에 대해 국어학적 해석을 덧붙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해 鄭在永(2007ㄴ)도 국어학적인 입장에서 해독을 하고 국어학적 설명을 가했다. 앞으로 목간 자료가 쏟아져 나오리라는 점에서 이두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자료에 대한 연구가 기존 자료의 신빙성을 높여 줄 것이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초기 이두문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우려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어 공개되기 이전에 충분히 국어학적 논의와 검증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어, 한문의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국어 어순으로도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처럼 한문으로도 국어식 문장으로도 풀릴 수 있는 자료는 후대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듯하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후대 자료를 초기 이두라고 하지는 않는다. 金永萬(2007)에서는 기존에 迎日冷水里碑文에서 초기 이두문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던 문장들에 대해 문헌적 자료 섭렵과 많은 한문 예문의 수집을 통해 이것들을 초기 이두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여기서 우리는 시각의 차이가 자료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전혀

6)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李勇(2006), 權仁瀚(2006)을 참고할 수 있다.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두의 기원과 관련하여 새로이 떠오른 주제 중 하나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이다. 먼저 일본과의 관계는 金澤庄三郎(1932: 1-25)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였다. 그는 일본의 片假字는 일본에서 창제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한자를 일본으로 전해준 한국이 먼저, 한자를 假字, 즉 차자표기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李基文(1981)은 廣開土大王碑에서 발견된 '之'와 中原高句麗碑에서 발견된 '中'이 高句麗의 것이었음을 들고 이것이 신라와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특히 '中'의 용법에 대해서는 小川環樹 교수의 의견을 수용하여 알타이어계인 鮮卑族이 세운 北魏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본에서 발굴된 安萬侶의 묘지에 나온 '卒之'의 '之'도 자동사 뒤에 나온다는 점에서 廣開土大王碑文에서 발견된 '之'의 용법과 일치한다(李基文 1981). 이것도 차자표기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沖森卓也(2007)은 漢文으로서는 正格이 아닌 고구려와 신라 자료들의 예를 들고 이를 和化漢文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7] 『日本書紀』 敏達元年(572) 五月 丙辰條에 고구려가 새의 날개에 먹으로 쓴 上表文을 헌상한바, 모든 史官이 읽을 수 없었으나 王辰爾가 이것을 읽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 기사는 '韓化漢文'의 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할 때, 북위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에서 이두가 생겨서 백제 또는 신라에 전해지고 이것이 고구려나 백제에서 일본에도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연구하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고구려의 자료가 너무나도 적다.

---

7) 고구려 자료의 예로는 廣開土王碑, 平壤城壁刻書, 新羅 資料의 예로는 迎日冷水里新羅碑銘, 戊戌塢作碑銘, 南山新城碑, 壬申誓記石을 들었다.

2.2. 資料 硏究

이두의 자료 전반에 대해서는 南豊鉉(1998ㄷ), 홍고(2002)를 참조할 수 있다. 南豊鉉(1998ㄷ)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자료를 이두사적 흐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홍고(2002)는 경어법을 통시적으로 다루면서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부록에서는 240면 정도를 할애하여 기존에 알려진 이두 자료 중 많은 것들을 판독하여 실어 놓았다. 이 부록에 실려 있는 이두를 보면, 이두도 그 분량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고대국어 시기의 자료라든지 고대국어라도 고구려나 백제의 이두 자료가 적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

이두 원문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부한 분량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國家記錄遺産(http://www.memorykorea.go.kr/), 韓國金石文綜合映像情報시스템(http://gsm.nricp.go.kr)을 들 수 있다. 국가기록유산에서는 전적이나 문서자료들을 볼 수 있고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에서는 실물에 대한 디지털 사진 및 탁본을 볼 수가 있다. 이들 사이트보다 자료가 적어 다소 이용하기에 불편하기는 하지만 각 박물관의 사이트들에 들어가면 그 박물관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다. 深津 行德 교수 홈페이지(http://www.rikkyo.ne.jp/univ/fukatsu/)도 몇몇 자료와 관련해서는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蔚珍鳳坪碑文, 迎日冷水里碑文, 丹陽赤城碑文은 글자 하나하나까지 따로 촬영하여 세밀히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이제 판독문에 의존하여 연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2.1. 三國時代의 吏讀

삼국시대의 이두는 초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이두는 한문을 일부 또는 거의 전면적으로 국어의 어순으로 배열하거나 한자의 助字로 국어의 형태부를 표기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기 이두는 한문과의 경계 자체가 모호하고 이두라고 보아야 할지 기준을 세우기 곤란한 면이 있다.

고구려의 자료로는 廣開土大王碑文, 高句麗城壁刻書, 瑞鳳冢銀合杅銘, 中原高句麗碑을 들 수 있다. 廣開土大王碑文에 이두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은 홍기문(1957)에서 거론된 이후에 李基文(1981), 金永旭(2004), 南豊鉉(2006)에 거론되었다. 李勇(2006)에서는 廣開土大王碑의 이두에 대한 기존 견해들을 정리하면서 '之'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이두라고 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高句麗城壁刻書나 瑞鳳冢銀合杅銘은 모두 이두의 고구려 기원설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것들이다. 高句麗城壁刻書의 경우는 鮎貝房之進(1934/1972), 홍기문(1957) 등이 있으며 南豊鉉(2000ㄱ)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었다. 瑞鳳冢銀合杅銘에 대한 硏究는 李弘稙(1954), 姜詮燮(1963) 등이 있으며 이것도 南豊鉉(2000ㄱ)에서 다시 다룬 바 있다.

中原高句麗碑文은 南豊鉉(2000ㄴ), 金永旭(2007ㄱ)에서 전문의 판독과 해독을 다루고 있다. 이전에 李基文(1981), 藤本幸夫(1988)에서 이 資料의 '中'에 대해 관심을 쏟고 吏讀일 可能性을 提示했던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南豊鉉(2000ㄴ)은 '之'의 用法도 吏讀일 可能性을 제시했다. 金永旭(2007ㄱ)은 南豊鉉(2000ㄴ)보다 이두로서의 '之'가 더 폭넓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中'과 '之'의 용법들은 초기 이두적 요소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다.

百濟의 자료는 高句麗보다도 드물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藤本幸夫(1988)에서 武寧王陵出土銀釧銘과 百濟七支刀銘(369년?)이 이두문일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南豊鉉(2000ㄱ:32)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두문으로 보는 데 문제가 있다.

최근에 들어서 百濟에도 이두 자료가 있었다는 주장이 金永旭(2003), 鄭在永(2003), 金永旭(2004), 金永旭(2008)에서 제기되면서 百濟 韓文 또는 百濟 吏讀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金永旭(2003), 金永旭(2008)은 百濟 木簡을, 金永旭(2004)는 武寧王誌石文을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이들 논의에서의 주장은 좀 더 면밀히 고찰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이두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도 섞여 있기 때문이다. 金永旭(2004)의 武寧王誌石文의 예에 대해서는 權仁瀚(2006)에서 百濟式 韓文 또는 百濟 吏讀로 볼 만한 부분이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으로 百濟式 韓文 또는 百濟 吏讀의 가능성에 대한 주장의 타당성은 의외로 쉽게 판명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목간 자료가 속속 발굴되고 있는데, 신라의 예를 참조할 때 백제의 목간에도 이두 자료로 볼 만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재 발견된 예들만 가지고는 백제 이두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新羅의 자료에 대한 개별 연구는 南豊鉉(1990ㄱ)(迎日冷水里碑), 南豊鉉(1989ㄴ)(蔚珍鳳坪新羅碑), 南豊鉉(1978, 1979)(丹陽赤城碑), 南豊鉉(1989ㄱ)(明活山城 作成碑文의 語學的 考察)에서 볼 수 있다. 이 작업들의 대부분은 南豊鉉(2000ㄱ)에 수합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자료 외에도 壬申誓記石, 戊戌塢作碑銘, 南山新城碑銘도 南豊鉉(2000ㄱ)에 새로이 정리되어 있다. 迎日冷水里碑에 대해서는 金永萬(2007)을 또한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 정리된 자료들은 모두 신라 이두의 기원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들이다. 이들 작업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한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대조하여 정확한 판독문을 마련하고 국어학적 해독을 제시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정표 덕분에 후학들이 많은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다.

2.2.2. 新羅時代의 吏讀

신라시대의 이두 자료에 대한 기초적 연구는 南豊鉉(1976)(第二新羅帳籍), 南豊鉉(1979)(丹陽赤城碑), 南豊鉉(1983)(昌寧仁陽寺碑), 南豊鉉(1988ㄴ)(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 造成記), 南豊鉉(1991ㄴ)(无盡寺鐘銘), 南豊鉉(1991ㄷ)(華嚴經寫經 造成記), 南豊鉉(1992ㄴ)(正倉院 所藏 新羅帳籍)에서 이루어졌다. 이 작업들의 대부분도 南豊鉉(2000ㄱ)에 수합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 華嚴經寫經 造成記는 이 시대에 이미 吐表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에 대해서는 南豊鉉(1991ㄷ)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華嚴經寫經 造成記에 대해서는 鄭在永(2000ㄴ)에서도 해독을 제시한 바 있다.

앞에서 華嚴經寫經 造成記에 보이는 吐表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여 볼 만한 것이 윤선태(2005), 金永旭(2008), 鄭在永(2007ㄴ)이다. 이들 논의에서는 月城垓子木簡의 판독과 해독을 통해 하한선이 7세기 이전으로 추측되는 이 자료에도 토표기가 발달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자료에서 '經中'의 '中'이나 '敎在之'의 '在'나 '之'는 토표기로 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신라의 토표기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 왔던 것보다 이전에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가 이두토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에 의존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자료에 대해 史學 분야에서 하한선을 높게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 신라 목간 자료가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2.2.3. 高麗時代의 吏讀

高麗時代 吏讀 資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李丞宰(1992ㄱ)에 나와

있다. 李丞宰(1992ㄱ)에는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기존에 다루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판독을 새로이 하여 바로잡는 등 의미 있는 작업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사적 관점에서 형태소를 중심으로 이두를 기술하고 있다. 南豊鉉(1974ㄱ)(松廣寺 13世紀 奴婢文書), 南豊鉉(1992ㄱ)(尙書都官貼文), 南豊鉉(1994ㄱ)(磨崖藥師如來座像銘, 通度寺國長生石標銘), 南豊鉉(1994ㄴ)(醴泉鳴鳳寺慈寂禪師凌雲塔碑 陰銘), 南豊鉉(1995)(淳昌 城隍堂 懸板南豊鉉), 고정의(1987)<高正儀(1987)(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南豊鉉(1998ㄱ)(淨兜寺造塔形止記의 解讀), 李喆洙(1997)(長城 白巖寺貼文) 등에서도 고려시대 이두 자료에 대한 판독과 해독이 이루어졌다. 모두 앞으로의 연구에 좋은 초석이 되리라고 본다.

고려시대 이두 자료와 관련해서는 최근 李丞宰(2007)이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있는 釋迦塔 墨書紙片에는 釋迦塔의 수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많은 분량의 이두가 적혀 있다. 특히 이 자료에 쓰인 한자들은 석독구결의 구결자와 자형들이 유사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석독구결 구결자의 발생 과정을 해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2.4. 朝鮮時代의 吏讀

朝鮮時代 吏讀 硏究는 『大明律直解』(1935)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은데, 朴喜淑(1985), 安秉禧(1985), 高正儀(1992ㄱ), 姜榮(1998), 韓相仁(1998) 등이 있다. 『大明律直解』는 분량도 비교적 풍부하고 吏讀吐들이 반복해서 나오므로 吏讀 연구에 있어 매우 좋은 자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이두문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율문 원문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문 원문의 이해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養蠶經驗撮要』(1415/1478)에 대한 연구로 安秉禧(1977), 李喆洙(1989) 등이 있다. 安秉禧(1977)은 『牛馬羊猪染疫治療方』(1578)에 대한 연구도 겸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많은 資料가 있으나 여기서는 줄이기로 한다.

2.3. 國語史的 硏究

형태론적 연구의 싹은 小倉進平(1929: 293)에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는 이두의 사용법을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차이를 신라시대의 이두에서는 '爲賜', '在也', '在之' 등과 같은 고형의 형태가 보이며 고려 이두에서 '令是白於', '令是於爲了等以' 등의 형태가 나타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이두의 시기 구분을 형태론적 양상에 따라 나눈 것이라고 하겠다.

이두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李崇寧(1952)을 들 수 있다. 그는 격어미의 일단으로 '段'과 '矣'를 살펴보고 이를 우랄-알타이제어의 처격과 비교하였다. 李崇寧(1952)에서는 고대국어의 음운 체계와 표기법 체계를 재구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형태론적 연구와 해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南豊鉉(1975ㄴ)은 신라시대 이두의 문법형태를 문법형태, 접미사, 준문법형태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문법형태의 발달이나 이두의 기원과 관련하여 볼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두는 그 성격상 다른 어떤 문법형태보다 어미류 형태가 많고 그래서 어미류 형태를 확인하기 쉽다. 이 어미류 형태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눌 수 있는데, 어미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小倉進平(1929: 293)에서는 淨兜寺五層塔造成形止記(1031)에 나온 '爲乎事'의 '乎'의 어원에 대해 근대자료 <捷解新語>를 근거로

'白'(숣)에서 온 것이라고 하여 '乎'가 겸양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 당시에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 대한 이해가 모자랐던 데서 온 것으로 보인다.

鮎貝房之進(1934: 413)에서는 '在'가 助動詞(=선어말어미)로 기능할 경우는 존칭의 기능이 없지만 '有情名詞+在旀, 有情名詞+在也'와 같은 '在'의 쓰임에 대해서는 '在'를 '계시'로 읽고 '겨'에 敬辭 '시'가 붙은 것으로 보았다. '在'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小倉進平(1938), 徐鐘學(1984)을 거쳐 李丞宰(1996)의 '主體敬語法說'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在'가 나오는 문장의 주어(=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홍고 2002).

'在'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이 姜成一(1958)과 姜成一(1959)이다. 그는 吏讀의 '在'와 '去'를 비교하여 '在'에서 전용한 형태가 '去'이고, '在'가 각종 접미사를 취하여 어의가 분화되어 나간 경향이 '去'와 일치하고, '去'의 표기체계는 이조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去乃, 去等'의 '去'는 시제 표시가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在'를 실사로서의 뜻이 퇴화되고 문법화하여 '時間相補助語幹'을 表示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유사한 견해는 南豊鉉(2004)에서 볼 수 있다.

'在'와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有'가 있다. 高正儀(1992: 155), 李丞宰(1992ㄱ: 168-174), 吳昌命(1995: 326), 朴盛鍾(1996: 245-248) 등에서는 '爲有-/有-'(爲有의 생략 表記), '-去有-' 등의 '有'를 중세국어 '-아 잇-'의 '잇-'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고 '有'를 '完了'를 표시하는 선어말어미로 보고 있다. 그러나 安秉禧(1977: 19), 韓相仁(1998: 100), 裵大溫(1997: 91) 등에서는 보조용언의 어간으로 보고 있다. 박용식(2003: 120)의 반박처럼 15세기 이전의 국어사 자료인 향찰이나 구결 자료는 물론 15세기의 한글 자료에서도 선어말어미로 쓰이는 '-잇-'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두의 '有'를 선어말어미로 보기는 어렵다.

이두의 문법 형태 중에서 '內'만큼 의미 파악이 어려운 차자는 없을

듯하다. 이 '內'에 대하여 徐鐘學(1995: 268)은 漢字(명사, 대명사, 동사 등)를 훈독하여 이두식 용어 곧 고유어로 읽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南豊鉉(2000ㄱ: 448-451)에서는 선어말 위치에 나타나는 것과 동명사로 쓰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어미를 추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종래에 '안'이나 'ᄂᆞ'로 읽은 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鄭在永(2000ㄱ)에서는 '內'를 고대국어의 서법 선어말어미 '-ᄂᆞ-'를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朴盛鍾(2007)은 일부는 서법 형태소로, 일부는 동명사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로 미루어 볼 때, '內'를 단일 용법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두 자료 중 높임법에 대한 연구는 장세경(1980), 홍고(2001ㄱ, ㄴ), 홍고(2002)를 들 수 있다. 홍고(2001ㄴ)에서는 '白'의 용법이 자료의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동시대 국어의 변화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홍고(2002)는 이두의 경어법이 시대적 변천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고찰한 논문이다. '賜', '敎(是)', '白'의 쓰임과 변천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白'은 11世기부터 겸양법 요소로 문법화했고 이후 14세기말부터는 공손법 요소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두에 나타난 어말어미 요소 중 종결어미보다는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종결어미에 대해서는 李喆洙(1989), 李丞宰(1992ㄱ), 朴盛鍾(1996), 姜榮(1998) 등 대부분 문법형태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다룬 것들이 대부분이다. 종결어미와 관련하여 높은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을 꼽으라면 '之'를 들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가 있으므로 설명을 줄이기로 한다. '之'와 관련되어 논의되는 것으로 '齊'가 있다. 그런데 이 '齊'는 논자에 따라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로 갈리어 파악되어 왔다. '-齊'를 安秉禧(1977), 南豊鉉(1991ㄷ), 徐鐘學(1995), 李丞宰(1992ㄱ), 朴盛鍾(1996), 裵大溫(1997) 등에서는 종결어미로 보았다. 그러나 실제 주장은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李丞

宰(1992ㄷ), 徐鐘學(1995)는 終結語尾의 用法을 强調했다. 특히 徐鐘學(1995)에서는 勸誘 또는 義務를 기술한 문장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南豊鉉(1991ㄷ), 朴盛鍾(1996), 裵大溫(1997)에서는 종결어미이지만 연결어미로 쓰이는 예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서 더 나아가 고정의(1992ㄱ), 姜榮(1993)에서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황선엽(2002)에서는 '齊'를 모두 연결어미로 파악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석독구결 자료와의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연결어미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齊'는 연결어미이므로 서재극(1986: 6), 裵大溫(1997)처럼 '-之'와 관련시켜서는 곤란하다.

연결어미는 종결어미에 비해 비교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연결어미에 대한 것으로는 李丞宰(1987), 金裕範(1998)을 들 수 있다. 황선엽(2002)에서는 이두의 연결어미 전반에 대해 살피고 있다. 먼저 李丞宰(1987)은 '尙書都官貼'을 자료로 활용하여 '將來'를 '-려'로 해독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려'는 '-리-'와 '-어-'가 결합한 것이므로 二字인 '將來'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金裕範(1998)은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이두 자료를 활용하여 '-是等'을 연결어미 '-*든'과 계사 '-시-'의 결합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는 석독구결 자료나 15세기국어 자료와 관련지어 볼 때 개연성이 높은 주장이다.[8] 황선엽(2002)는 연결어미와 관련된 기존의 차자표기 연구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새겨 볼 만한 주장이 많이 들어 있는 논문이다. 특히 '遣'을 연결어미 '-고'에 관련시켰던 기존의 견해가 지닌 문제점을 밝히고 '-견'으로 보아야 할 것을 주장했는데 논리상 수긍할 만한 점이 적지 않다.

조사에 대한 연구로는 南豊鉉(2000ㄱ), 李丞宰(1992ㄱ), 吳昌命(1995), 朴盛鍾(1996)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南豊鉉(2000ㄱ)에는 신

8) 석독구결이나 향가의 예와 관련해서는 이용(1998)에서 다룬 바 있다.

라이두의 조사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실려 있다. 李丞宰(1992ㄱ)는 고려시대의 이두에 관한 것이고, 吳昌命(1995), 朴盛鍾(1996)는 조선 초기 이두에 관한 것이다. 徐鐘學(1995), 裵大溫(1997)은 사적 고찰이다. 하귀녀(2005) 역시도 사적 고찰인데, 여기서는 국어 보조사의 분포 환경과 의미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두의 보조사를 다루고 있다.

조사에 대한 개별적 연구로는 李崇寧(1952), 장세경(1973), 裵大溫(1985), 金昇坤(1985), 李賢熙(1995ㄴ) 등을 들 수가 있다. 李崇寧(1952)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段'과 '矣'에 관한 것이다. 李賢熙(1995ㄴ)에서는 '沙'를 한글 자료의 '-ᅀᅡ'와 관련지어 설명한 것이다.

통사론적 연구로는 조은주(2003), 박철주(2006)을 들 수 있다. 조은주(2002)는 『大明律直解』를 중심으로 하여 부정법을 다룬 것이다. 박철주(2006)는 이두의 구문에 관한 연구이다. 구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드문 상태이다.

음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都守熙(1975), 都守熙(1979)를 들 수 있다. 전자에서는 이두어 '-숣-(白), -빗-(有), -연-'(在)의 변천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고 있으며, 후자에서는 '-白-, -有-, -乎-, -在-, -所里-' 등에 대한 후대 문헌의 독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혼기의 원인을 음운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두와 관련된 음운사적 연구는 매우 영성한 상태이다.

통사론과 음운론 분야에 대한 연구도 고대국어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두 분야에 대한 연구의 분발이 요구된다. 이 분야 모두 연구할 거리가 많지만 아직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조선시대 후기에 나온 이두 학습서에 대한 연구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 이두 학습서는 대략 10여 종 정도가 되는데, 이두문의 문례를 모은 것, 이두문의 토를 모은 것, 이두문에 쓰이는 한자성어와 이두를 뽑아 놓은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두나 한자어의 독법을 한글로 달아 놓은 것들이다. 이

중에서 특히 『儒胥必知』가 널리 애용된 자료였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姜詮燮(1972), 金永萬(1980) 등을 들 수 있다. 『儒胥必知』와 관련지어 설명될 만한 것으로 『經俚襍說』을 다룬 장경준(2007)이 있다. 그는 『經俚襍說』이 『儒胥必知』의 부록 부분에 실린 '吏讀彙編'과 거의 구성이 같아서 일견 『經俚襍說』의 부록을 베낀 것 같으나 다른 점이 적지 않으므로, 이 자료를 『儒胥必知』가 유행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이두 학습 자료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 다른 학습서로는 『吏文』과 『吏文大師』가 있다. 이들 책도 적지 않게 유포되었던 것으로 姜詮燮(1985), 安秉禧(1986ㄱ·ㄴ, 1987ㄴ, 1988, 1999), 張允熙(1995)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다. 고정의(2003)은 10여 종의 吏讀 學習書에 나오는 吏讀와 독음을 모두 정리해 놓은 업적이다. 우리가 이두를 연구할 때 부딪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독법이라는 점에서 이두의 독법과 관련해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展望과 結論

이두 연구는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석독구결 연구의 기폭제가 되었던 『舊譯仁王經』의 발견과 『瑜伽師地論』 점토구결의 발견으로 고려시대 국어에 대한 연구가 늘었고 그 결과로 인해 고려시대 국어에 대한 이해가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었다. 석독구결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마련된 고려시대 국어에 대한 이해의 증대는 신라시대 또는 고려시대 이두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자료에 대한 이해의 증대를 통해 기존하는 고려시대 또는 신라시대 이두를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목간 자료와 같은 새로운 이두 자료의 출현도 이두 연구의 새로운 국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목간 자료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이두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여실히 요구하고 있다. 자료에 대한 전반적 관찰과 자체의 판독 등을 통해 최선의 판독문을 마련하고 이를 해독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에 대한 지식, 이두에 대한 지식 또는 차자표기 전반에 대한 지식, 국어 문법사에 대한 지식 등이 필요하다. 더욱이 목간 자료는 국내에서의 작업만으로는 올바른 해독의 성취가 힘들다. 목간은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존재하고 그 양도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이 목간들은 그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우리가 참고할 것이 많으므로 이들 나라의 목간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해외의 자료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목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적한 연구 방법들이 목간 연구에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이 연구 방법들은 기존의 금석문 이두 자료나 문헌 이두 자료에도 유사하게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두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판독에 힘을 쓰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체에 일가견이 있는 서예학의 힘을 빌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독의 과정에서는 이두 자료가 나올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학자들의 힘을 빌려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타분야와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석가탑 사리공에서 발견된 묵서지편의 연구를 통해 기존에 쌓인 연구 성과들이 새로운 자료의 판독과 해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었다. 이두에 대한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석독구결이나 향가 등 다른 차자표기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도 이두의 연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두 연구를 위해서는 차자표기의 연구에도 힘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어사 연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료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발굴된 자료들의 전문을 판독·해독하고 난 뒤에, 적절히 주석을 달아 후일의 연구에 토대를 마련해 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두 자료 중 가장 잘 알려진 『대명률직해』마저도 전문 해석과 주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반성을 요한다. 그러나 이런 작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조만간 많은 자료들이 꼼꼼하게 점검받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두 연구를 회고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소박하게나마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거나 살폈더라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것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본다. 이러한 실수는 이두 연구를 올바로 회고하고 나름대로는 전망을 제시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후일 계속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약점을 보충하도록 하겠다.

參考文獻

吏讀 學習書
吏文(1658年)
吏文大師(17-18世紀)
典律通補(1786年)
古今釋林의 羅麗吏讀(1789年)
吏文襍例(18世紀以後)
儒胥必知(19世紀)
五洲衍文長箋散稿の語錄辨證說(19世紀)[衍=연]

姜 榮(1994), 「『大明律直解』 吏讀의 終結語尾에 대한 考察」, 『한국어학』 1, 103-133.
姜 榮(1998), 『大明律直解 吏讀의 語末語尾 硏究』, 國學資料院
姜成一(1958), 「古代語의 形態論的 硏究試攷 (上)」, 『어문학』 3, 17-37.
姜成一(1959), 『古代語의 形態論的 硏究試攷 (上)」, 『어문학』 4. 96-123.
姜成一(1966), 「『大明律直解』 吏讀索引」, 『國語國文學』 31, 73-113.
姜允浩(1956), 「吏讀學史 硏究序說: 近世 西洋人의 吏讀 硏究 (一)」, 『국어국

문학』 15, 75-92.
姜允浩(1957), 「吏讀學史 硏究序說: 近世 西洋人의 吏讀 硏究 (三)」, 『국어국문학』 18, 142-164.
姜允浩(1957), 「吏讀學史 硏究序說: 近世 西洋人의 吏讀 硏究 (二)」, 『국어국문학』 17, 43-64.
姜允浩(1958), 「吏讀學史 硏究序說: 近世 西洋人의 吏讀 硏究 (四)」, 『국어국문학』 19, 58-76.
姜允浩(1959), 「吏讀學史 硏究序說: 近世 西洋人의 吏讀 硏究 (五)」, 『국어국문학』 20, 145-172.
姜詮燮(1963), 「吏讀矣新硏究」,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姜詮燮(1972), 「儒胥必知에 대하여」, 『어문학』 27, 13-26.
姜詮燮(1985), 『吏文大師』에 대하여, 『羨烏堂 金炯基先生 八耋紀念 國語學論叢』, 創學社.
高正儀(1987),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의 吏讀」, 『울산어문논집』 3, 울산대 국문과, 1-18.
高正儀(1992ㄱ), 「大明律直解의 吏讀 硏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高正儀(1992ㄴ), 「大明律直解 吏讀 索引」, 『울산어문논집』 8.
高正儀(1993), 「대명률직해 이두의 표기법」, 『울산어문논집』 9, 울산대 국문과, 1-23.
고정의(2002), 「대명률직해의 이두와 그 특징」, 『口訣硏究』 9, 19-72.
고정의(2003), 「이두 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口訣硏究』 10, 223-252.
權仁瀚(2006), 「武寧王陵 出土 銘文들에 대한 語學的 考察」, 『口訣硏究』 17, 87-123.
權仁瀚(2007), 「古代 韓國木簡에 보이는 釋讀表記에 대하여-토론문(1)」, 『한국木簡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168-169.
權仁瀚(2007), 「正倉院藏 '第二新羅文書'의 正解를 위하여」, 『口訣硏究』 18, 141-172.
권재선(1980), 「吏讀文字 '叱'考」, 『蘭汀南廣祐博士 華甲紀念論叢』, 一潮閣.
金根洙(1961), 「이두연구」, 『아세아연구』 7.
金昇坤(1985), 「이두의 여격조사 '亦中'에 대한 고찰」, 『建國語文學 9·10 合輯(金一根先生 華甲紀念論文集)』.

金昇坤(1992), 「이두의 '遣'과 '-古-'의 통어 기능고」, 『홍익어문』 10·11, 홍익대 국어교육과.
金昇坤(1997), 「이두토씨 '亦中'과 '良中'의 意味, 『한말연구』 3, 1-10.
김승호(1993), 「이두의 전래 독음에 대하여」, 『동아어문논집』 3, 동아어문학회, 181-206.
金永萬(1980), 「儒胥必知의 吏讀硏究」,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金永萬(2007), 「迎日冷水里新羅碑文의 文章分析 試考」, 『口訣硏究』 18, 67-104.
金永旭(2003), 「百濟 吏讀에 대하여」, 『口訣硏究』 11, 125-151.
金永旭(2004), 「漢字·漢文의 韓國的 受容」, 『口訣硏究』 13, 65-97.
金永旭(2007ㄱ), 「中原高句麗碑」의 國語學的 硏究」, 『口訣硏究』 18, 43-65.
金永旭(2007ㄴ), 「和化漢文의 起源에 關한 一考察」, 『2007 韓日 워크샵 發表論文集(古代 韓日의 言語와 文字』, 141-154.
金永旭(2008), 「古代 韓國木簡에 보이는 釋讀表記」, 『口訣硏究』 19, 171-189.
金完鎭(1980), 「指定文字說의 定立을 위하여」, 『蘭汀南廣祐博士 華甲紀念論叢』.
金完鎭(1985), 「특이한 音讀字와 訓讀字에 대한 연구」, 『동양학』 1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18.
金裕範(1998), 「吏讀 '-是等'攷」, 『口訣硏究』 4, 115-136.
金泰均(1968), 「大明律直解 吏讀註解」, 『京畿』 3, 경기대.
金泰均(1971), 「大明律直解 吏讀 形態分類」, 『論文集』 1, 경기대, 57-107.
金泰均(1972), 「『大明律直解』에 있어서의 '在'의 用法」, 『京畿』 7, 경기대.
金泰均(1975), 「『養蠶經驗撮要』의 吏讀註解」, 『論文集』 3, 경기대, 113-148.
金泰均(1976), 「(續)『養蠶經驗撮要』의 吏讀註解」, 『論文集』 3, 경기대, 59-77.
金澤庄三郎(1918), 「吏讀の硏究」, 『朝鮮彙報』 4月號.
金澤庄三郎(1932), 『新羅の片假名』, 金澤博士還曆祝賀會, 東京.
南豊鉉(1974ㄱ), 「十三世紀奴婢文書와 吏讀」, 『檀國大論文集』 8, [남풍현(2000)에 재수록]
南豊鉉(1974ㄴ), 「古代 國語 吏讀表記」, 『東洋學』 20, 3-14.
南豊鉉(1975ㄱ), 「借字表記法의 '元'字攷」, 『國語學』 3, [남풍현(2000)에 재수록]
南豊鉉(1975ㄴ), 「漢字 借用 表記法의 發達」, 『國文學論集』 7·8, 단국대 국문과.
南豊鉉(1976), 「第二新羅帳籍에 대하여」, 『美術資料』 19, 國立中央博物館, [남풍현(2000)에 재수록]

南豊鉉(1978), 「丹陽赤城碑의 解讀 試攷」, 『史學志』 12-1, 12-20.
南豊鉉(1979), 「丹陽新羅赤城碑의 語學的 考察」, 『國文學論集集』 13, 檀國大 國文科,
南豊鉉(1981), 『借字表記法硏究』, 단국대출판부.
南豊鉉(1983), 「昌寧仁陽寺碑의 吏讀的 考察」, 『國文學論執』 11, 檀國大 國文科, 9-32.
南豊鉉(1986), 「吏讀·鄕札表記의 原理와 實際」, 『국어생활』 6, 국어연구소.
南豊鉉(1988ㄱ), 「釋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0.
南豊鉉(1988ㄴ), 「永泰二年銘石毘盧遮那佛 造成記의 吏讀文 考察」, 『新羅文化』 5, 東國大 新羅文化硏究所, 5-25.
南豊鉉(1989ㄱ), 「明活山城 作成碑文의 語學的 考察」, 『二靜 鄭然粲先生 回甲紀念 國語國文學論叢 Ⅲ』, 塔出版社.
南豊鉉(1989ㄴ), 「蔚珍鳳坪新羅碑에 대한 語學的 考察」, 『韓國古代史硏究』 2, 한국고대사연구회.
南豊鉉(1990ㄱ), 「迎日冷水里碑의 語學的 考察」, 『基谷 姜信沆先生華甲紀念論文集』, 太學社.
南豊鉉(1990ㄴ), 「吏讀·口訣」, 『國語硏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南豊鉉(1991ㄱ), 「无盡寺鐘銘의 吏讀文 考察」, 『石靜 李承旭先生 回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
南豊鉉(1991ㄴ), 「新羅 華嚴經寫經 造成記에 대한 語學的 考察」, 『東洋學』 21, 檀國大 東洋學 硏究所, 1-29.
南豊鉉(1991ㄷ), 「新羅時代 吏讀의 '哉'에 대하여」,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民音社.
南豊鉉(1991ㄹ), 「吏讀資料」, 『韓國學基礎資料選集: 中世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41-456.
南豊鉉(1992ㄱ), 「古文書의 吏讀 解讀」, 『정신문화연구』 1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3-108.
南豊鉉(1992ㄴ), 「正倉院 所藏 新羅帳籍의 吏讀 硏究」, 『中齊 張忠植博士 華甲紀念論叢-人文·社會科學篇』, 檀國大 出版部.
南豊鉉(1993ㄱ), 「新羅時代의 吏讀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文學과 知性社, 11-32.

南豊鉉(1993ㄴ),「新羅時代 吏讀文의 解讀」,『季刊書誌學報』9, 韓國書誌學會.
南豊鉉(1994ㄱ),「高麗時代의 吏讀文解讀 二題」,『우리말 연구의 샘터』, 간행위원회, 659-668.
南豊鉉(1994ㄴ),「高麗初期의 帖文과 그 吏讀에 대하여」,『古文書硏究』5, 韓國古文書學會, 1-19.
南豊鉉(1995),「淳昌 城隍堂 懸板에 대하여」,『古文書硏究』7, 韓國古文書學會, 69-93.
南豊鉉(1998ㄱ),「淨兜寺造塔形止記의 解讀」,『古文書硏究』12, 韓國古文書學會, 1-50.
南豊鉉(1998ㄴ),「古代國語의 文法形態」,『第三次環太平洋韓國學國際會議 한국학논총』, 국제회의조직위원회편.
南豊鉉(1998ㄷ),「고대국어의 자료」,『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207-241.
南豊鉉(2000ㄱ),『吏讀硏究』, 태학사.
南豊鉉(2000ㄴ),「中原高句麗碑文의 解讀과 吏讀的 성격」,『고구려연구』10, 고구려연구회, 363-378.
南豊鉉(2004),「시상의 조동사 '在/ᄒᆞ/겨-'의 발달,『국어국문학』138, 5-34.
南豊鉉(2005),「韓國 古代吏讀文의 文末語助辭 '之'에 대하여」,『口訣硏究』15, 5-28.
南豊鉉(2006),「上古時代에 있어서 借字表記法의 發達」,『口訣硏究』16, 5-25.
都守熙(1975),「吏讀史硏究」,『論文集』2-7, 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 1431-1461.
都守熙(1979),「吏讀語의 音韻變化」,『서병국선생화갑기념논총』.
藤本幸夫(1988),「古代朝鮮」の言語と文字文化」,『ことばと文字』, 中央公論社.
朴甲洙(1979),「吏讀 副詞語彙攷」,『師大論叢』19, 서울대 사범대학.
朴炳采(1966),「鄕札과 吏讀의 槪念 定立에 對하여」,『어문론집』9, 민족어문학회, 14-33.
朴盛鍾(1987),「大明律直解의 '旨是玆無亦'과 '旨是玆以'에 대하여」,『國語學』16, 239-251.
朴盛鍾(1993ㄱ),「朝鮮初期의 吏讀資料」,『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文學과 知性社.
朴盛鍾(1993ㄴ),「李和 開國功臣錄券의 吏讀와 그 解讀」,『古文書硏究』4, 1-32.

朴盛鍾(1996),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朴盛鍾(2000), 「栗谷의 土地賣買文記에 대하여」, 『古文書硏究』 16·17, 96-108.
朴盛鍾(2002), 「吏讀에서의 訓讀에 대하여」, 『口訣硏究』 8, 129-144.
朴盛鍾(2007), 「吏讀字 '內'의 讀法」, 『口訣硏究』 19, 139-170.
박용식(2003), 「이두의 생략 표기에 대한 연구」, 경상대 박사학위논문.
박진호(2002), 『各司受敎』의 이두 용례」, 『各司受敎』,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청년사.
박철주(2006), 『대명률직해의 국어학적 연구』, 일지사.
朴喜淑(1985), 「大明律直解의 吏讀 硏究」,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裵大溫(1985), 『朝鮮朝初期의 吏讀助詞硏究』, 형설출판사.
裵大溫(1993), 『吏讀語彙論』, 형설출판사.
裵大溫(1997), 『吏讀用言의 活用語尾硏究』, 형설출판사.
白鳥庫吉(1897), 「吏道·諺文」, 『史學雜誌』 8-1, 97-108.
서재극(1986), 「향가의 '-져(齊)'와 고려방언의 '-지(之)'」, 『한글』 193, 3-12.
徐鍾學(1984), 「借字 '有'와 '在'」, 『蔚山語文論集』 1, 울산대.
徐鍾學(1989), 「借字 '在'의 의미와 그 기원」, 『素園安潤泰교수화갑기념논문집』.
徐鍾學(1993), 「高麗時代의 吏讀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文學과 知性社.
徐鍾學(1994), 「指定文字와 借字 '內'」, 『民族文化論叢』 14, 1-21.
徐鍾學(1995), 『吏讀의 歷史的 硏究』, 영남대 출판부.
小倉進平(1929), 『鄕歌及吏讀の硏究』, 京大國語學硏究會編, 小倉進平著作集, 影印本, 태학사, 1975.
小倉進平(1938), 「朝鮮語における 謙讓法 尊敬法 助動詞」, 京大國語學硏究會編, 小倉進平著作集, 影印本, 태학사, 1975.
申采浩(1924), 「朝鮮古來의 文字와 詩歌의 變遷」, 『동아일보』 1.1.
安秉禧(1977), 「養蠶經驗撮要와 牛疫方의 吏讀의 연구」, 『東洋學』 7,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1-20.
安秉禧(1984ㄱ), 「韓國語 借字表記法의 形成과 特徵」, 『제3회 국제학술회의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7-3~27-20.
安秉禧(1984ㄴ), 「典律通補와 그 吏文에 대하여」, 『목천 유창균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계명대 출판부.
安秉禧(1985), 「大明律直解 吏讀의 硏究」, 『奎章閣』 9, 서울대 도서관.
安秉禧(1986ㄱ), 「吏讀 文獻 <吏文>에 대하여」, 『배달말』 11, 경상대 배달말 학회.
安秉禧(1986ㄴ), 「吏讀의 學習書에 대하여」, 『제1차 KOREA학 국제교류세미나논문집』, 중국 목단강시: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安秉禧(1987ㄱ), 「語學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91-1079.
安秉禧(1987ㄴ), 『吏文과 吏文大師』, 탑출판사.
安秉禧(1988), 「崔世珍의 '吏文諸書輯覽'에 대하여」, 『周時經學報』 1, 탑출판사,
安秉禧(1992ㄱ), 『國語史 硏究』, 文學과 知性社.
安秉禧(1992ㄴ), 『國語史 資料 硏究』, 文學과 知性社.
安秉禧(1999), 「『吏文』과 『吏文大師』를 다시 논함」, 『겨레문화』 13, 한겨레문화연구원.
安秉禧(2001), 「『吏讀便覽』에 대하여」, 『書誌學報』 25.
安秉禧(2003), 「『大明律直解』의 書名」, 『韓國語硏究』 1, 韓國語硏究會.
吳昌命(1995), 『朝鮮前期 吏讀의 國語史的 硏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윤선태(2005),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13-142.
이강로(1984), 「인칭 매김법 '-在(견)-에 대한 연구: 『대명률직해』를 중심으로」, 『한글』 184, 3-52.
이강로(1989), 「借字表記에 쓰인 '內'자에 대한 연구(1)」, 『한글』 203, 7-24.
李基文(1981), 「吏讀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52, 65-78.
李基文(1989), 「古代國語 硏究와 漢字의 새김 問題」, 『震檀學報』 67, 97-113.
李崇寧(1952), 「吏讀의 '段·矣攷」, 『歷史學報』 4, 歷史學會, 71-80.
李崇寧(1955), 「新羅時代 表記法 體系에 關한 試論」, 『論文集』 2, 서울대.
李丞宰(1987), 「將來考」, 『國語學』 16, 221-238.
李丞宰(1989), 「借字表記 硏究와 訓民正音의 文字論的 硏究에 대하여」, 『國語學』 19, 203-239.
李丞宰(1992ㄱ),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李丞宰(1992ㄴ), 「農書輯要의 吏讀」, 『震檀學報』 74, 179-194.
李丞宰(1995), 「借字表記 硏究의 成果와 課題」, 『光復 50周年 國學의 成果』,

韓國精神文化硏究院.
李丞宰(1996),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 '-ㅭ(겨)-',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517-556.
李丞宰(1997), 「朝鮮 初期 吏讀文의 語中 '叱'에 대하여」,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 태학사, 185-204.
李丞宰(2001), 「古代 吏讀의 尊敬法 '-在(겨)-'에 대하여」, 『語文硏究』 112, 韓國語文敎育硏究會, 53-70.
李丞宰(2007), 「석가탑 묵서지편의 지편 조립과 이두 판독」, 『석가탑 發見 유물 조사 중간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이용(1998), 「연결어미 '-거든'의 문법사적 고찰」, 『구결연구』 4, 23-55.
李勇(2006), 「廣開土大王碑文의 吏讀的 要素」, 『口訣硏究』 17, 67-85.
이용현(2007), 「木簡으로 본 신라의 문자·언어생활」, 『口訣硏究』 18, 107-139.
이용현(2008), 「문자자료로 본 삼국시대 언어문자의 전개」, 『구결연구』 19, 191-225.
李喆洙(1989), 『養蠶經驗撮要의 吏讀硏究』, 仁荷大學校 出版部.
李喆洙(1997), 「長城 白巖寺貼文의 吏讀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8, 인하대학교, 1-72.
李賢熙(1995ㄱ), 「'-아져'와 '-良結'」,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411-428.
李賢熙(1995ㄴ), 「'-ㅿ'와 '-沙'」, 『韓日語文論叢』, 국학자료원, 523-538.
李熙昇(1955), 『國語學槪說』, 民衆書館.
李弘稙(1954), 「延壽在銘新羅銀合杅에 대한 一,二 考察」, 『崔鉉培博士 還甲記念論文集』, 정음사.
장경준(2007), 「경리잡설(經俚襍說)」의 이두와 독음」, 『口訣硏究』 18, 409-443.
장세경(1973), 「이두(吏讀)의 토씨 연구」, 『논문집』 7, 한양대.
장세경(1980), 「이두의 높임법(敬語法) 연구」, 『국학논총: 어문연구』 1, 한양대 국학연구원, 41-62.
장세경(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張允熙(1995), 「吏讀에 나타난 國語 活用語尾의 體系와 性格」, 『전농어문연구』 7, 서울시립대 국문과.
장윤희(2003), 「吏讀 硏究史」, 송기중 외(편), 『한국의 문자와 문자연구』, 집문당.
장지영·장세경(1976/1991), 『이두사전』, 산호.

前間恭作(1929), 「吏讀便覽に就て」, 『朝鮮』 165, [京都大文學部 國語學國文學硏究室(1974), 『前間恭作著作集(下)』에 재수록]
鮎貝房之進(1934/1972), 「雜攷 俗字攷·俗文攷·借字攷」, 國書刊行會, 東京.
鮎貝房之進(1955), 「借字攷 (Ⅰ), (Ⅱ), (Ⅲ)」, 朝鮮學報 7, 8, 9.
정광(2003), 「韓半島에서 漢字의 受容과 借字表記의 變遷」, 『口訣硏究』 11, 53-86.
정광(2006), 「吏文과 漢吏文」, 『口訣硏究』 16, 27-69.
鄭寅承(1957), 「吏讀起源의 再考察」, 『一石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一潮閣.
鄭在永(1998), 「大韓帝國 時期 西洋人의 吏讀 硏究」, 『韓國文化』 22, 51-75.
鄭在永(2000ㄱ),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ᄂᆞ-'와 그 변화」, 『형태론』 2-1, 73-106.
鄭在永(2000ㄴ),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연구」, 『문헌과 해석』 12.
鄭在永(2003), 「百濟의 文字 生活」, 『口訣硏究』 11, 87-124.
鄭在永(2007ㄱ), 「古代 韓國木簡에 보이는 釋讀表記에 대하여-토론문(2)」, 『한국木簡학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170-173.
鄭在永(2007ㄴ), 「月城垓子木簡에 나타나는 吏讀에 대하여」, 『2007 韓日 워크샵 發表論文集(古代 韓日의 言語와 文字』, 별지.
정호완(1985), 「이두어 '是'의 형태론적 위계」, 『大邱語文論叢』 3, 대구어문학회.
조은주(2003), 「前期 中世國語의 否定法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沖森卓也(2007), 「古代 東아시아에서의 漢文 變容」, 『2007 韓日 워크샵 發表論文集(古代 韓日의 言語와 文字』, 119-129.
최윤갑(1990), 「이두의 발생과 그 성격」, 『韓國傳統文化硏究』 6,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8.
하귀녀(2005), 『국어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韓相仁(1993), 「大明律直解 吏讀의 語學的 硏究」,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홍고(2001ㄱ), 「이두 '白'의 기능 변화에 대하여」, 『국어사자료연구』 2.
홍고(2001ㄴ), 「이두자료 『農圃集』의 경어법에 대하여」, 『口訣硏究』 7, 79-111.
홍고(2002), 「이두자료의 경어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홍기문(1957),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洪淳鐸(1974), 『吏讀硏究』, 光文출판사.

〔130-743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길 13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직부 글쓰기교실〕
E-mail: leeyonghu@hotmail.com
접수일자: 2008. 05. 31.
게재결정: 2008. 07. 17.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study on *Idu* in ancient and middle Korean

Lee, Yong

In this study, firstly we backwardly observe data which is from ancient *Idu* to Joseon Dynasty. And on these works, we'll produce prospect of this field. Therefore, the origin of *Idu*, data of *Idu*, prospect of *Idu* study etc. are dealt with. Especially, on the origin and conception of *Idu*, we study many things that is in relation to. In relation to *Idu* data, we divide at four ages-three Kingdom Dynasty, Silla Dynasty, Goryeo Dynasty, Joseon Dynasty.

Key words: *Idu*, Koreanalized Classical Chinese, loan character transcripion systems, *Kugyol*, wooden tablets